

曾鞏의 社會詩 내용 분석*

吳憲必**

<목 차>

1. 서론
2. 曾鞏 社會詩의 내용
 - 2.1 民生苦에 대한 共感
 - 2.2 爲政者의 無能과 虛禮虛飾 비판
 - 2.3 國防에 대한 失策 비판
 - 2.4 民本思想의 體現
3. 결론

1. 서론

曾鞏은 北宋 시대 唐宋八大家에 속한 文章家로서 名聲이 알려진 文人이었다. 역대 비평가들이 그의 散文 작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높은 평가를 하는 데 비하여, 그의 詩 작품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¹⁾ 그의 제자인 陳師道와 秦觀마저도 스승인 曾鞏의 시 작품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하였던 것이다.

秦觀은 말하기를: “인재에게도 각기 한계가 있는데, 杜甫는 시에 있어서는 고

* 본 연구는 2016년도 덕성여자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덕성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釋惠洪, 《冷齋夜話》卷九: 彭淵才平生五大恨事. 第一恨鱗魚多骨, 第二恨金橘太酸, 第三恨蕪菜性冷, 第四恨海棠無香, 第五恨曾子固不能作詩.

금에서 으뜸이지만, 韻이 없는 것은 거의 읽을 만하지 않았다. 曾鞏은 散文으로 천하에 명성이 났었지만, 韻이 있는 것은 거의 교묘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²⁾

세상에서 말하기를: “蘇洵은 시에 능하지 못했고, 歐陽修는 賦에 능하지 못했으며, 曾鞏은 韻文에 뒤떨어졌다.”라고 하였다.³⁾

위의 두 글에서 ‘有韻者(韻이 있는 것)’와 ‘韻語(韻文)’는 바로 韻律을 갖춘 詩·詞·賦 등을 가리키는데, 陳師道와 秦觀은 曾鞏의 詩歌 작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가의 영향으로 인하여 曾鞏 詩歌에 대한 편협된 인식이 지속되었다고 하겠다.⁴⁾ 그렇다고 해서 曾鞏의 詩歌 작품에 대하여 낮은 평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元代에 이르러 方回는 曾鞏의 시에 대하여 매우 높은 평가를 내렸다.

子固(曾鞏의 字)의 시는 西崑體의 典故를 많이 늘어놓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일소하고 모두 없애지게 하였다. 질박하고 청신하고 온건하여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 後山(陳師道の 號)은 山谷(黃庭堅의 號)을 만나기 전에는 산문을 南豐先生(曾鞏의 별칭)에게 배웠을 뿐만 아니라, 시 역시 南豐先生에게 배웠다. 山谷을 만난 이후에 시가 변하였지만, 산문은 변하지 않았을 따름이다.⁵⁾

이 글은 서두에서 北宋 초기 詩壇을 주도하며 對偶와 典故를 多用하여 곁으로는 화려하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부실한 西崑體에서 曾鞏이 탈피하여 질박하고 청신한 시를 창작했다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曾鞏이 北宋 中期에 이르러 歐陽修를 주축으로 梅堯臣, 蘇舜欽, 王安石, 蘇軾, 黃庭堅 등이 주장하고 실천한 詩歌革新運動의 일원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清代 姚瑩도 曾鞏의 詩歌가 歐陽修, 王安石에 버금간다고 높은 평가를 내렸

2) 《東坡題跋》 卷三: 秦少遊言人才各有分限, 杜子美詩冠古今, 而無韻者殆不可讀; 曾子鞏以文名天下, 而有韻者輒不工.

3) 陳師道, 《後山詩話》: 世語云: 蘇明允不能詩, 歐陽永叔不能賦, 曾子固短於韻語.

4) 紀昀, 《瀛奎律髓刊誤》: 南豐究不以詩見長, 此因後山之故, 而黨와 南豐, 純是門戶之見.

5) 方回, 《瀛奎律髓》 卷十六: 子固詩一掃崑體所謂餽釘刻畫咸無之. 平實清健, 自爲一家. 後山未見山谷時, 不惟文學南豐, 詩亦學南豐. 既見山谷, 然後詩變而文不變耳.

고, 錢鍾書도 唐宋八大家 중에서 曾鞏의 시가 蘇洵, 蘇轍보다 훨씬 뛰어나며, 七言絶句는 더욱 王安石의 風致가 있다고 평가를 높게 하였다.

文名이 詩名 曾子固를 덮어버렸으나, (詩의)재능을 논하자면 구양수, 왕안석에 버금간다. 元豐類稿⁶⁾를 처음부터 읽어보니 누군가가 해당화에 비견한 것을 한스러워 하노라.⁷⁾

唐宋八大家에 대해 논하자면, 그(曾鞏)의 시는 蘇洵, 蘇轍 부자의 시보다 훨씬 뛰어나며, 七言絶句는 더욱 王安石의 風致가 있다.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曾鞏은 文章家로서의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어 있었고, 역대 비평가들의 曾鞏의 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曾鞏에 대한 연구는 산문 분야에 치중하여 진행되어 왔고, 시 분야에 대한 연구는 미미했던 게 사실이다.⁹⁾ 그러나 曾鞏 시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내린 비평가들의 견해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의 440여首의 시 작품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독창성과 예술 풍격이 뛰어난 시가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曾鞏의 시 작품은 내용에 따라 社會詩·詠史詩·詠物詩·詠懷詩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本稿에서는 우선 시인으로서의 曾鞏의 위상을 평가하는 一環으로서, 그의 440여首의 시 작품 가운데서 社會詩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6) 《元豐類稿》는 曾鞏의 詩文集으로, 宋 神宗 元豐 年間에 발행되었으므로 이렇게 일컬음. 모두 五十卷이며 이 五十卷 외에 《續稿》四十卷과 《外集》十卷이 있었으나, 宋이 南渡 후에 《續稿》와 《外集》은 逸失되어 전하지 않음.

7) 姚瑩, 《後湘詩集·論詩絶句》: 文掩詩名曾子固, 論才合於亞歐. 王. 元豐類稿從頭讀, 遣恨何人比海棠. ※ '遣恨何人比海棠'의 내용은 彭淵才가 해당화가 향이 없음을 한스러워 하고, 曾鞏이 시에 능하지 못함을 한스러워 한 것을 인용한 것임. 주1)참조.

8) 錢鍾書, 《宋詩選註》: 就八家而論, 他的詩遠比蘇洵、蘇轍父子的詩好, 七言絶句更有王安石的風致.

9) 시 분야의 연구로는, 박사논문은 전무하며, 석사논문으로는 倪惠穎의 《論曾鞏前後期詩風演變》(寧夏大學, 2004), 李艷敏의 《曾鞏詩歌研究》(西北師大, 2005) 등이 있고, 소논문도 10여 편 정도가 있을 뿐이며, 국내에서는 전무한 상황이다.

2. 曾鞏 社會詩의 내용

曾鞏이 처한 시대는 바로 北宋 詩文革新運動이 전개되던 시기였고, 曾鞏 역시 이 운동에 동참하였다. 이 당시 宋詩는 이미 經世致用的 풍격이 형성되어 爲國爲民의 潮流가 흐르고 있었다. 曾鞏의 社會詩는 바로 이러한 宋詩 풍격과 전통의 投影이며, 그가 體得한 시대정신의 體現이라고 하겠다.

2.1 民生苦에 대한 共感

曾鞏이 살았던 北宋時代는 對內外的으로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즉, 對內的으로는 官界의 腐敗와 冗兵·冗官 등으로 말미암은 財政의 破綻, 소수의 地主 계층과 다수의 貧農 계층으로 나누어진 불건전한 사회구조 등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다. 또한 對外的으로는 遼·西夏의 침략으로 인하여 굴욕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무거운 歲幣를 바쳐야 하였다. 曾鞏은 이러한 世態 하에서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의 고통스런 삶을 직접 목격하고 詩 속에서 共感을 表露하였던 것이다.

먼저 <追租>¹⁰⁾시에 주목하여 보자.

 今歲九夏旱, 올해 90일 여름 내내 가물어
 赤日萬里灼. 붉은 해가 만리를 태우네.
 陂湖盛埃壙, 못은 갈라져서 먼지만 날리고
 禾黍死磽确. 벼와 기장은 매마른 땅에서 죽어가네.

10) 《曾鞏集》 51쪽. ※ 本稿는 《南豐先生元豐類稿》 淸 康熙56年 長洲 顧崇齡刻本을 바탕으로 陳杏珍·晁繼周가 點校하여 2004년 中華書局에서 발간한 《曾鞏集》을 저본으로 하였음.

衆期必見省, 백성들은 반드시 보살피지기를 바라는데
 理在非可略. 이치대로 소홀히 해서 안 되는 것이리.
 謂須倒廩賑, 모름지기 창고를 열어 구제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詎止追租闕. 세금 독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구나!
 吾人已迫切, 우리 백성들은 이미 절박하고
 此望亦迂邈. 이러한 소망도 멀기만 하네.
 奈何呻吟訴, 어쩔 수 없어 신음하며 호소하지만
 卒受鞭撻却. 결국은 채찍질을 받을 뿐이네.

飢羸乞分寸, 굶주려서 여위고 조금 감해주라고 요청하면
 斯須死笞縛. 눈 깜짝할 사이에 태형에 처하고 포승줄에 묶여 죽을 지경.
 法令尙修明, 법령은 밝고 공평함을 숭상하는데
 此理可驚愕. 이러한 처리는 정말 경악스럽네.
 公卿飽天祿, 공경들은 녹을 받아 배부르지만
 耳目知民瘼. 눈과 귀가 백성들의 아픔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 시는 제목 '追租(세금을 독촉하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苛斂誅求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스런 삶을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 여름 내내 못 밑바닥마저 짙 짙 갈라지는 혹독한 가뭄으로 벼와 기장이 말라 죽어가는 상황 앞에서 농민들의 가슴은 찢어질 수밖에 없다. 굶어 죽을 지경인 농민들을 창고를 열어 구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苛斂誅求하는 관리들의 비리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하반부에서는 '법령은 밝고 공평함을 숭상하는데'라고 하면서 당시 법령의 부당성을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한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과 빈둥거리며 나라의 녹으로 배불리 먹고사는 관리들을 대비시킴으로써 나라의 弊政을 지적하고, 爲政者들에게 '백성들의 고통에 동감하고' 爲民政策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楚澤>¹¹⁾시에서도 가뭄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스런 삶에 同感하면서 空理空論만 하는 관리들에게 분노하고 있다.

11) 《曾鞏集》 82-83쪽.

楚澤荒涼白露根, 초땅 호수는 황량하고 하얗게 뿌리를 드러냈는데
 盈虛無處問乾坤, 물이 차고 마름을 천지에 물을 곳이 없구나!
 蟲蟲旱氣連年有, 찌는 듯한 가뭄의 기운이 해마다 이어지니
 寂寂遺人幾戶存? 적적하게 남아 있는 사람들 몇 집이나 되나?
 盜賊恐多從此始, 도적들이 아마 대부분 이곳에서 일어나는데
 經綸空健與誰論? 방책은 좋다고 하지만 헛되고 누구와 상의하는가?
 諸公日議雲臺上, 대신들 날마다 조정에서 의론하지만
 忍使憂民獨至尊, 차마 백성들을 걱정하는 것을 황제에게만 맡길 수 있는가?

여기에서 楚땅은 고대에 楚나라에 속해 있던 곳으로, 지금의 湖北省 江漢 유역 일대를 가리킨다. 北宋 당시 옛 楚땅에 매년 혹독한 가뭄으로 흉작이 지속되어 주민들은 대부분 고향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어서 몇몇 남아있는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도적이 되기도 하는 현실 앞에서, 대신들은 무사안일하게 공리공론만 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시인은 심지어 백성들의 가난을 황제의 책임으로 돌리는 대신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湘寇>¹²⁾시에 주목하여 보자.

衡湘有寇未誅剪, 형산과 상수에 도적이 있지만 아직 벌하여 죽이지 못하니
 殺氣凜凜圍江潯, 살기가 싸늘하게 강변을 에워쌌다.

脛人操兵快如鶻, 도적들은 병기 다루는 게 매처럼 빠르고
 千百其旅巢深林, 많은 군대가 깊은 숲에 무리를 이루었다.
 超突溪崖出又伏, 갑자기 골짜기와 기슭에 나왔다가 또 잠복하니
 勢變不易施戈鉞, 기세가 변하여 쉽게 창과 칼을 휘두르지 못한다.
 能者張弓入城郭, 싸움에 능한 자는 활시위를 매고 성곽으로 들어오니
 連邑累鎮遭驅侵, 읍과 진들이 연이어 침략을 당했다.
 群黨爭誇殺吏士, 패거리들은 다투어 과시하며 관리들을 죽여
 白骨棄野誰棺衾? 백골은 들에 버려지니 누가 관재와 이불을 마련하나?

烏蟻睚眦倚岩險, 오합지졸이 눈을 부릅뜨고 험준한 암벽에 기대어 있으나

12) 《曾鞏集》 46-47쪽.

此虜難勝端非今。 이 도적들 이기기가 어려운 건 오로지 오늘만은 아니다.
 較然大體著方冊, 분명히 대요는 典籍에 기록되어 있으니
 唯用守長懷其心。 오로지 지방관을 잘 임용하여 그들의 마음을 품어야 하리.

嗚呼廟堂不慎擇, 오호! 조정은 선발을 신중히 하지 않고
 彼士靦靨何能任? 선비들은 도량이 좁으니 어떻게 임용될 수 있나?

願書此語致太史, 원컨대 이 말을 써서 태사에게 보내면
 獻之以補丹扆箴。 이것을 황제의 붉은 병풍의 잠언¹³⁾에 보충하기를 바란다.

이 시는 전반부에서 ‘湘’(지금의 湖南省)지역의 도적의 창궐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倉人’ 역시 비천한 도적을 지칭하고 있는데, 그들의 횡포 앞에서 宋의 병사들은 무기력하기만 할 뿐이다. 도적 무리에 의해 백골이 들에 버려지는 비참한 상황을 목격하고 시인은 爲政者들의 無能을 지적하고, 覺醒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인은 도적의 난리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원인을 잘못된 지방관 선발에서 찾고 있다. 유능하면서 백성들과 더불어 희노애락을 같이할 수 있는 관리의 임용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시의 末尾에서는 憂國表情의 마음으로 이 글을 史官인 太史를 통하여 황제에게 올림으로써, 올바른 治國과 적합한 인재 등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秋日>¹⁴⁾시에 초점을 맞춰보자.

繡簾錦幕不算重, 수놓은 주렴, 비단 장막을 귀하다고 여기지 않고
 從此朱門戒霜雪, 이로부터 붉은 대문 부자집은 서리와 눈을 막네.
 誰憐牛角歌者哀? 누가 머리 땀은 어린애를 가엾게 여겨 슬프게 노래하리?
 歲歲苦貧思短褐, 해마다 가난에 고통스럽고 짧은 베잠방이나 바탈 뿐이네.

曾鞏은 이 시에서 늦가을의 부자집과 가난한 집의 모습을 대비시킴으로써

13) 황제가 제후를 대할 때 뒤에 세우는 붉은 빛의 병풍으로, 황제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唐 敬宗 때, 浙西觀察使 李德裕가 바친 丹扆六箴이 유명함.

14) 《曾鞏集》 49쪽.

北宋 당시 빈부 격차를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다. 화려한 주렴과 비단 장막으로 晚秋의 쌀쌀한 날씨에 대처하는 부자집의 여유로움에 비하여 짧은 베잠방이나 걸칠 수 있으면 다행으로 여기는 가난한 집의 처절함이 비통스럽게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이 시의 주제는 “붉은 대문 부자집에선 술과 고기 냄새나는데, 길에는 얼어죽은 뼈가 있네.”¹⁵⁾라고 읊으면서 富益富 貧益貧의 사회 부조리를 폭로한 杜甫 시와 一脈相通한다고 하겠다. 曾鞏의 사회시도 杜甫의 ‘詩史’라고 불리우는 사회시처럼 北宋 당시 사회의 病理現象을 리얼하게 폭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하겠다.

2.2 爲政者の 無能과 虛禮虛飾 비판

曾鞏은 北宋 당시 無能하고 虛禮虛飾으로 私利만을 추구하는 황제를 비롯한 爲政者の 그릇된 행태를 시를 통하여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歎嗟>¹⁶⁾

夜歎不爲絺綌單,	밤에 탄식하는 건 갈포 홀옷때문이 아니고
晝嗟不爲薇蕨少.	낮에 탄식하는 건 고비와 고사리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네.
天弓不肯射胡星,	황제의 활은 감히 오랑캐 별을 쏘지 못하고
櫓槍久已躔朱鳥.	혜성이 오랫동안 이미 궁중을 운행했네. ¹⁷⁾
徐揚復憂羽蟲孽,	서주, 양주는 또 날벌레 피해가 걱정되고
襄漢正病昭回杳.	양양 한수 유역은 암울하여 햇빛이 어둠으로 바뀌네.
力能懷畏未足憂,	위세는 경외할 만하여 우려할 게 없지만
憂在北極群陰繞.	걱정은 황제가 소인배 무리에게 포위되었다는 것이라네.

15) <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 朱門酒肉臭, 路有凍死骨.

16) 《曾鞏集》 5쪽.

17) 櫓槍은 혜성을 가리키며, 혜성의 출현은 극심한 재난을 의미함. 朱鳥는 二十八宿 중 南方七宿을 총칭하는데, 天帝의 南宮으로 황제의 궁정을 가리킴.

이 시에서 시인의 탄식 소리는 매우 높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빈궁한 삶을 한탄하는 소리가 아니고, 憂民憂國하는 걱정의 표출인 것이다. 제3구에서는 '황제의 활은 감히 오랑캐 별을 쏘지 못하고'라고 하면서 당시 西夏, 遼 등 이민족의 침략에 무력한 爲政者들을 비판하고 있다. 제4구에서는 櫛槍 즉 혜성을 오랑캐에 비유하여 남쪽 중원 지역을 침범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內憂外患 앞에서도 소인배 무리인 대신들의 안일한 대책만을 귀담아 듣는 무능한 황제의 처신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降龍>¹⁸⁾시에서는 虛禮虛飾에 빠진 爲政者들과 빈궁한 백성들을 대비시켜 爲政者들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降龍左右施襟裾。	강룡 무늬 좌우로 옷이 펼쳐지고
兩廊夾廟深渠渠。	양쪽 회랑이 正殿을 끼고 있는데 깊고 넓네.
禮下天子一等爾。	禮制가 천자 아래로 한 등급 차이일 뿐이니
衣服居處何其殊。	의복과 거처가 얼마나 빼어난지!
文旛列戟照私第。	채색 깃발과 늘어선 창이 사저를 비추고
青紫若若官其孥。	청색 자색 관복은 길게 늘어지고 그 처자를 돌보네.
先後熒煌首珠翠。	앞뒤가 휘황찬란하고 머리에는 진주와 비취를 꽂고
侍者百十顏溫瑜。	시녀들도 많은데 안색이 뽀얗네.
凝寒墮指熱侵骨。	엄동설한에 손가락이 끊어지고 열이 뼈에 사무치는데
一宴百盞傾金壺。	연회에선 수없이 마시며 금술단지를 기울이네.
窮民疾首望雨露。	가난한 백성들은 황제를 미워하며 은택을 소망하지만
太上欲倚攀姚虞。	황제는 고관대작에게 의지하며 요순 반열에 오르려 하네.
君胡爲乎目時病。	그대는 어찌 눈 앞의 병폐를 보고서도
橐針襪艾恬以愉。	침과 쑥을 전대에 넣어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가!
生前赫赫浪自重。	생전에는 혁혁히 살며 부질없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만
身後沒沒寧非愚?	사후에는 흔적도 없는데 어찌 어리석지 않을쏜가?

이 시는 '降龍'에 '고관대작'을 기탁하여 諷刺의 수법으로, 백성들의 疾苦를 도외시하는 爲政者들의 그릇된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시의 전반부

18) 《曾鞏集》 46쪽.

에서는 용 무늬 옷을 입은 고관대작의 화려한 자태와 집무실인 正殿과 거처하는 궁전의 광대함을 은근히 비판하고 있다. 이어서 채색 깃발과 창들로 무장한 병사들이 지키는 대신들 私邸의 화려한 모습에 냉소를 보내고 있다. 또한 궁중 시녀들의 지나친 치장을 묘사하면서 궁중의 사치스런 생활을 비판하고 있다. 중반부에서는 엄동설한 혹독한 추위에 떠는 백성들과 연회에서 만취해서 히히덕거리는 爲政者들을 대비하여 부패된 조정을 폭로하고 있다. 또한 비와 이슬 곧 恩澤을 바라는 빈곤한 백성들은 도외시하면서도 고관대작에게 의지하며 요순 반열에 오르려 하는 황제를 비판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눈 앞의 병폐를 목격하고도 무관심한 채, 자신들의 保身을 위해 애쓰며 희희낙락해하는 爲政者들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시의 末尾에서는 생전에 자신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면, 죽어서는 이름도 남기지 못할 고관대작들에게 仁治를 베풀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이어서 <里社>¹⁹⁾시에 주목하여 보자.

郊天社地君所重,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는 것은 황제가 소중히 여기는 바
剪秸刳匏微得供。	벼짚을 베고 박을 빼개어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니네.
秦皇漢帝陋古初,	진시황제와 한나라 황제는 古禮를 천시하여
桀時殊壇傾力奉。	제사터에 제단을 유달리 꾸미고 힘을 다해 떠받들었네.
年年屬車九重出,	해마다 수행하는 수레가 아홉 겹이나 동원되네
羽衛千人萬人從。	호위대와 의장대가 수도 없이 따라가네.
黃金日搜盡崖窟,	황금을 날마다 캐니 절벽과 동굴이 다 깎이고
飛檣走箠華夷動。	돛대 깃발 날리며 말에 채찍을 가하니 온 세상이 요동쳤네.
馬蹄路南村有社,	말발굽이 남쪽으로 향하는데 마을에 사직단이 있기 때문
里老邀神迎且送。	마을 원로가 신을 맞이하여 환영하고 전송하네.
荒林破屋風雨入,	황폐한 숲 부서진 집엔 비바람이 들이치고
野鼠山狐狼藉共。	들쥐와 여우가 모두 낭자하네.
何言茅筍古瓦甌,	어찌 말하리오? 띠젓가락과 낡은 질그릇은
稻飯豚蹄人得用。	사람들이 쌀밥, 돼지족발 먹을 때나 쓸 수 있는 것이라고.

19) 《曾鞏集》 3쪽.

시인은 제1~4구에서 秦始皇帝와 한나라 황제가 간소하게 지내던 고대의 天祭, 地祭의 古禮를 본받지 않고, 虛禮虛飾에 빠져 거창하게 祭禮를 거행한 역사적 사례²⁰⁾를 들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제5~10구에서는 진시황제나 한나라 황제처럼 과대한 세금을 징수하면서도 빈곤한 백성을 외면한 채, 종묘 제사 등에 지나칠 정도로 국고를 낭비하는 北宋 당시 황제에게 警鐘을 울리고 있다. 제11~12구에서 묘사된, 황폐한 숲의 부서진 집에서 겨우 연명해가는 貧村 백성들의 빈곤한 모습은 황제의 虛禮虛飾하는 행태와 대비되어 더욱 비참하게 다가온다.

2.3 국방에 대한 失策 비판

宋의 國策은 ‘強幹弱枝’ 즉 重中輕外였다. 그 기본 원칙은 첫째, 중앙 집권으로 중앙의 권력 즉 軍·政·財·法 등의 권력이 지방을 초월하여 있고 둘째, 文人政治를 제창하고 武人의 정치 간여를 엄금하는 것이었다. 이 목적은 唐末五代에 武인이 나라를 어지럽혔던 병폐를 없애려는 데 있었다. 宋代는 文人을 신임하자, 軍人은 천시받아 그 質과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졌다. 또한 文人을 지휘관으로 많이 등용하였으므로 전쟁에 전혀 경험이 없는 文人들이 참전하여 전쟁에 패하는 경우도 많았다.²¹⁾ 曾鞏은 시를 통하여 이러한 국방정책에 대한

20) 《史記·封禪書》: (진시황은) 제위 3년째에 동쪽으로 군현을 시찰하고, 驪山에서 제사 지내며 진나라의 공적을 칭송했다. 그리하여 齊나라와 魯나라의 유생과 박사 70명을 선발해 태산 아래로 데려왔다. 유생 중 어떤 사람이 “옛날의 봉선은 蒲車(부들로 바퀴를 감싼 수레)를 이용했는데, 산의 토석과 초목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였으며, 땅은 청소하고서 제사 장소로 삼았으며 갈개는 벼의 줄기를 사용했는데, 이로써 古禮란 좇아 행하기가 아주 쉬움을 말해줍니다.”라고 아뢰었다. 시황은 이들의 견해가 각기 다르고 사리에 맞지 않아서 시행하기가 어렵자, 이로부터 유생들을 배척했다. 그리하여 車道를 건립하여 태산 남쪽에서부터 정상에 이르도록 하고, 또한 비석을 세워서 진시황의 공덕을 칭송하고 봉선해야만 하는 도리를 밝혔다. 북쪽 길로 내려와 양보산에서 地神에게 제사 지냈다. (即帝位三年, 東巡郡縣, 祠驪山, 頌秦功業。於是徵從齊魯之儒生博士七十人, 至乎秦山下。諸儒生或議曰:「古者封禪爲蒲車, 惡傷山之土石草木; 埽地而祭, 席用菹稭, 言其易遵也。」始皇聞此議各乖異, 難施用, 由此絀儒生。而遂除車道, 上自秦山陽至顛, 立石頌秦始皇帝德, 明其得封也。從陰道下, 禪於梁父。)

失策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던 것이다.

먼저 <胡使>²²⁾시에 초점을 맞춰보자.

南粟鱗多送北,	남쪽 식량들 비늘처럼 쌓여 대부분 북으로 보내지고
北兵林林長備胡。	북쪽 병사들은 숲을 이뤄 오랑캐를 오랫동안 방어했네.
胡使一來大梁下,	오랑캐 사신이 한 번 대량 ²³⁾ 으로 내려 오자
塞頭彎弓士如無。	변방은 시위를 당기는 궁사가 없는 것과 같네.
折衝素恃將與相,	적을 꺾는 것은 평소 장상에 의지하는 법
大策合副艱難須。	대책이 부합하려면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리.
還來里閭索窮下,	심지어 시골까지 와서 빈궁한 백성들을 수탈하여
斗食尺衣皆北輸。	식량 한 말, 옷감 한 치도 모두 북쪽으로 운송하네.
中原相觀歎失色,	중원에선 서로 바라보며 탄식하고 핏기를 잃고 있는데
胡騎日肥妖氣粗。	오랑캐 기병은 날로 살찌고 간악한 기세가 등등하네.
九州四海盡帝有,	구주 사해를 황제가 다 소유하고 있거늘
何不用胡藩北隅?	어제서 오랑캐를 북쪽 모퉁이의 藩屬으로 삼지 않는지?

이 시는 北宋이 국방의 약세로 인하여 북방 오랑캐인 遼의 침략을 받고 위기에 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眞宗 元年(1004), 遼가 침략하자 소극적 자세로 서둘러서 澶淵(지금의 河南省 濮陽市)에서 遼와 굴욕적인 ‘澶淵之盟’이라는 형제관계를 맺기에 이르렀다. 이 맹약의 결과, 宋은 遼에게 매년 歲幣로 銀 10만 兩, 絹 20만匹을 바쳐야 하는 수모를 겪어야 하였다. 이 시를 통하여 遼의 침략에 무기력한 조정의 국방정책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게 된 빈궁한 농민들의 고통스런 삶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시는 ‘以文爲詩’의 경향을 띤 曾鞏의 대표 작품으로, 그의 文章家로서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이 시는 敘事 중에 議論을 융합하여 구조가 근엄하고 章法上에 있어서 避直, 避平, 避順하고 대비의 수법을 운용하여 全詩가 서사 중에 변화를 줌으로써 감화력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고 하겠다.²⁴⁾

21) 傅樂成 著, 辛勝夏 譯, 《中國通史》, 지영사, 1998, 615-617쪽 참조.

22) 《曾鞏集》 7-8쪽.

23) 大梁은 戰國時代 魏의 도읍. 宋代에도 도읍으로 汴京이라 불리웠고, 지금 開封市에 해당함.

24) 倪惠穎, <論曾鞏前期詩歌創作>, 《船山學刊》 제63권 제1기, 2007, 2쪽 참조.

다음의 <邊將>²⁵⁾시에서도 無事安逸하고 불합리한 국방책으로 異族의 침략을 초래한 失政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太祖太宗能得人,	태조, 태종은 능히 인재를 등용하니
長壘橫邊遮虜塵。	보루가 길게 변방을 가로질러 오랑캐 먼지를 차단했네.
太傅李漢超,	태부 이한초 ²⁶⁾
侍中何繼筠,	시중 하계균 ²⁷⁾
二子追接吳與孫,	두 사람은 吳起 ²⁸⁾ 와 孫子 ²⁹⁾ 를 좇아 이르렀고
鎮齊撫棣功業均。	제망과 체망을 편안하게 다스려 공적이 가지런했네.
卓哉祖宗信英特,	탁월하도다! 선왕이 영특함을 신임하여
明如秋泉斷如石。	가을 샘물처럼 현명하고 돌처럼 굳게 판단했네.

二子按轡行邊隅,	두 사람이 고삐를 당겨 변방 모퉁이를 돌아다니니
牙纛宛轉翻以舒。	장군의 큰 깃발은 구비져 펴럭이며 펼쳐졌네.
汛掃沙磧無纖埃,	모래 벌판을 물 뿌려 씻어내니 먼지가 없어지고
塞門千里常夜開。	변방의 대문도 천리에 밤에도 늘 열렸네.
壯耕老舖安且愉,	젊은이들 농사 지어 노인을 봉양하니 편안하고 유쾌하며
桑麻蔽野華芬敷。	뽕과 마가 들을 덮고 꽃 향기가 널리 퍼졌네.

當今羌夷久猖獗,	지금은 오랑캐가 오랫동안 창궐했는데도
兵如疽癰理須決。	병사들은 종기 같으니 이치대로 터뜨려 짜내야 한다네.

國容軍政不可亂,	국가행정으로 군사정책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되니
薦此以爲陛下媿。	이런 이치를 올림으로써 폐하를 즐겁게 하려는 것이네.

편폭이 매우 긴 이 古詩는 전반부에서 北宋 초기 太祖, 太宗이 李漢超와 何繼筠 등 名將을 重用하여 軍事的 專權을 맡김으로써 변방의 오랑캐를 물리친 국

25) 《曾鞏集》 48쪽.

26) 宋 太祖가 北漢에 親征할 때, 戰功을 많이 세웠음. 그 후 淮南 節度使 李重進의 叛亂을 평정하였고, 齊州防禦使, 關南兵馬都監, 應州觀察使, 判齊州, 關南巡檢을 역임하였음. 또한 병사들과 동고동락한 장군으로 이름이 났음.

27) 오대에서 北宋 초기의 名將으로, 北宋 建立 후에 많은 戰功을 세웠고, 建武節度使, 判棣州를 역임하였음.

28) 중국 전국시대 魏의 군사 지도자이며 정치가이고, 《吳子兵法》을 저술하였음.

29) 중국 춘추시대 齊의 전략가로, 《孫子兵法》을 지은 孫武를 가리킴.

방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李漢超와 何繼筠은 吳起와 孫子 못지않은 군사 전략가로서, 異族의 침입을 방어함으로써 변방 주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하지만 北宋 중기에 이르러서는 국방의 弱勢를 초래하게 되었다. 시의 후반부에서 시인은 오랑캐(遼, 西夏)는 창궐하여 끊임없이 침략하는데, 禁軍과 병사들을 몸에 쓸모없이 붙여난 중기에 비유하여, 양적으로만 비대하여, 질적으로는 저하된 국방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詩句에서는 '국가행정으로 군사정책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되는 법'³⁰⁾이라고 강조하면서 당시 황제에게 警覺心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황제가 장수에게 專權을 일임하여야 되며, 군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軍事에 관여하면 군대를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예의 제도로써 다스려야 하는 국가 정치와 냉철한 판단력과 작전명령으로 군대를 지휘해야 하는 전쟁터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방에 대한 失策은 <兵間>³¹⁾시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大義缺絕久未圖,	대의가 끊어져 오랫동안 도모하지 않고
小人輕險何不至。	소인들은 경박하여 비뚤어진 짓을 못하는 게 없네.
世上固自有百爲,	세상에서는 본디 백가지를 행할 수 있지만
兵間乃獨求一試。	전쟁터에서는 오직 한 번의 시도만 추구해야 하는 법.
趙括敢將亦已危,	조괄은 감히 병사를 거느렸으나 또한 이미 위험해졌고 ³²⁾
李平請守那復議。	이평은 방어를 주청하였으니 어찌 다시 의논하리오? ³³⁾
吁嗟忍易萬人生,	아아! 차마 만인의 생명은 쉽게 생각하고
冀幸將徼一身利。	요행히 공을 구하며 일신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단 말인가!

30) 春秋 시대, 齊의 병법이 司馬穰苴가 저작한 병법서 《司馬法》의 <天子之義>편의 '古者國容不入軍, 軍容不入國。軍容入國則民德廢, 國容入軍則民德弱。'을 인용함.

31) 《曾鞏集》 4쪽.

32) 趙括은 戰國時代, 趙나라의 장군. 趙奢의 아들로 아버지가 전한 병법만 공부했을 뿐 경험이 없었다. 秦나라의 간계로 인해 廉頗 대신 장군에 기용되었으나 長平大戰에서 秦나라 군사에게 大敗하고 戰死하였다.

33) 李平은 改名이고, 원래 이름은 李嚴. 蜀漢의 대신. 蜀 建興 9년(231), 제갈량이 북벌할 때, 그는 都護의 신분으로 군량과 건조 운송을 감독한다. 그러나 군량이 부족하자 책임을 모면하려고 東吳가 침노한다는 허위 보고를 하여 제갈량으로 하여금 군사를 철수시켜 방어하도록 한다.

曾鞏은 이 시에서도 異族의 침입에 異論이 분분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異族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국방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우선 戰國時代, 趙나라 장수 趙括과 蜀漢의 대신 李平의 사례를 들고 北宋 당시 유능한 장수의 임용과 장수에 대한 專權 부여를 역설하고 있다. 특히 神宗 당시 西夏에게 당한 永樂城의 慘敗를 예로 들고, 助言을 묵살하고 一身의 私利와 功績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다가 패전한 徐禧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永樂城의 戰役에서는 당시 사령관인 徐禧가 실전 경험이 풍부했던 種諤, 高永能의 의견을 무시했던 것을 결정적 패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즉, 永樂城이 물이 부족한 곳으로 築成하기에 부적합하다는 種諤의 의견이 묵살된 것은 송대 文官인 徐禧가 통제하는 군대의 약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다.³⁴⁾ 北宋은 文官優位政策을 취한 나머지 武官의 사회적 지위는 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군인의 사기는 저하되었으며 軍律이 흐트러져 수도 및 북방 요지를 담당하는 禁軍의 質的 저하를 가져오게 되었다.³⁵⁾ 이러한 국방의 弱勢로 인하여 遼와 西夏는 끊임없이 침략을 가해왔던 것이다.

2.4 民本思想의 體現

曾鞏은 일생동안 孔孟과 성현을 敬仰하며, 儒家 經義를 믿고 그의 인생철학의 宗旨로 삼았다. 이에 따라 儒家의 民本思想을 중시하며, 38세에 進士에 급제하여 청렴한 관리로서 백성들의 삶에 늘 관심을 가지고, 孔孟의 仁民·愛民의 主旨를 받들며 몸소 실천하고자 하였다.³⁶⁾ 이러한 曾鞏의 民本思想이 그의 시 속에서 어떻게 體現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上杜相公>³⁷⁾시에 주목하여 보자.

34) 李錫炫, <北宋 神宗年間 對西夏 經略과 影響, 認識>, 《역사와 세계》 39집, 2011. 34쪽 참조.

35) 申採湜, 《宋代官僚制研究》, 三英社, 1981, 383-385쪽 참조.

36) 高國藩, <論曾鞏詩及其民本思想>, 《撫州師專學報》 제46기, 1995, 9. 8쪽 참조.

水爲舟楫旱爲霖, 물에선 배와 노가 되고 가뭄에는 장맛비가 되며³⁸⁾
 社稷生民注意深. 사직과 백성들에게 관심이 깊었습니다.
 豈謂便辭黃閣議, 어찌 황각³⁹⁾에서 논의하는 일을 그만두고
 翻然求就紫芝吟. 갑자기 紫芝曲을 읊는 삶을 추구할 줄 알았겠습니까?
 始終好古儒林士, 시종 옛것을 숭상하는 유림의 선비들
 進退憂時國老心. 나아가고 물러남에 시국을 걱정하는 나라 원로의 마음.
 只有聲名隨日遠, 단지 명성과는 날로 멀어지실 텐데
 不令功被管弦音. 공로가 관현악에 올리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네.

이 시는 儒家의 民本思想을 역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1구에서는殷나라 高宗이 어진 재상 傅說을 중용한 사례를 들면서 황제의 인재 등용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제2구에는 황제를 비롯한 爲政者들은 항상 백성의 생계에 관심이 깊어야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5~6구에서는 儒生들은 ‘民本思想’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은퇴 후에도 憂國하는 원로들에게 존경을 표시하고 있다. 제7~8구에서는 爲政者들이 名聲만 추구해서는 안되며, 항상 民生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간다면 저절로 興民樂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曾鞏은 이러한 바람직한 官吏像을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관리로서 직접 실천해나갔던 것이다.

다음의 시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준다.

<冬夜卽事>⁴⁰⁾

印奩封罷閣鈴閑, 관인함을 봉하니 집무실⁴¹⁾이 한가로운데
 喜有秋毫免素餐. 즐거움은 적은 공로라도 있어 공짜로 녹봉 받지 않는 것.

37) 《曾鞏集》 86쪽.

38)殷나라 高宗이 어진 재상 傅說을 얻고 나서 “만약 철이 필요하면 너를 써서 솥들을 갈게 하고, 만약 큰 강을 건너게 되면 너를 써서 배와 노를 만들게 하고, 만약 큰 가뭄이 들면 너를 써서 장맛비를 내리게 하리라. (若金, 用汝作礪, 若濟巨川, 用汝作舟楫, 若歲大旱, 用汝作霖雨. 《書·說命上》)”라고 말한 내용에서 유래한 것으로, 황제의 人材 등용이 國事に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39) 黃閣은 재상이 집무하는 廳舍인데, 재상을 가리키기도 함.

40) 《曾鞏集》 101쪽.

41) 閣鈴은 州郡長官의 집무실로서, 鈴閣이라고도 함.

市粟易求倉廩實, 시장에서 식량은 구하기 쉽고 창고는 가득 차고
 邑獫無警里閭安. 성엔 경비하는 삼살개도 없고 마을이 편안하네.
 香清一榻氍毹暖, 맑은 향기가 평상에 가득하고 양탄자도 따뜻한데
 月淡千門霧凇寒. 달빛이 많은 집 대문에 으스스한데 얼음꽃이 차갑네.⁴²⁾
 聞說豐年從此始, 듣건대 이 꽃이 풍년을 예감한다 하니
 更回籠燭卷簾看. 다시 초롱을 돌려서 주렴을 말아 올리고 바라보네.

이 시는 宋 神宗 熙寧 5년(1072) 겨울, 曾鞏이 知齊州軍州事(齊州軍州는 지금의 山東省 濟南을 가리킴)로 재직하고 있을 때 지은 작품이다. 제1~2구에서는 자신의 조그마한 공로로, 일을 하지 않으며 녹봉을 받는 것을 면하게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빈둥거리며 녹봉만 축내는 당시 관리들을 은근히 비판하고 있다. 제3~4구에서는 자신의 노고로 주민들이 양식 걱정을 하지 않게 되고 도적이 없는 평화로운 마을이 된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시인의 추구한 與民樂인 것이다. 제6~8구에서는 밤에 풍년의 조짐을 알려주는 얼음꽃을 바라보면서 풍작에 대한 기대로 흡족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시인 자신이 自註에서, 속담을 인용함으로써 풍년에 대한 확신을 생동감있게 묘사한 점이 돋보인다 하겠다.

儒家 사상가로서 儒家 經傳을 섭렵한 曾鞏은 관리로서의 길을 걸으며 民本思想을 宦路의 主旨로 삼고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였으나, 그의 벼슬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曾鞏은 유가 경전에서 습득한 爲民論을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秋懷>⁴³⁾詩에 담았다.

42) 시인은 다음과 같이 自註를 달았다. “齊 땅은 추위가 심하여 밤공기가 안개 같았는데, 나무 위에 얼어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눈 같았고, 해가 뜨면 섬돌 앞 뜰에 가득 휘날렸는데 매우 사랑스러워서 齊 땅 사람들은 그것을 얼음꽃이라 불렀다. 속담에 이르기를 ‘얼음꽃이 얼음꽃에 겹치니, 가난한 사람은 밥 담을 단지를 마련한다.’라고 하였으므로, 풍년의 조짐으로 여긴다(齊地寒甚, 夜氣如霧, 凝於木上, 旦起視之如雪, 日出飄滿階庭, 尤爲可愛, 齊人謂之霧凇. 諺曰: “霧凇重霧凇, 窮漢置飯瓮.”以爲豐年之兆).

43) 《曾鞏集》 34쪽.

我本孜孜學詩書，	나는 본래 성실히 《詩》·《書》를 배웠거늘
詩書與今豈同術？	《詩》·《書》가 지금은 무슨 쓸모가 있나？
智慮過人祇自讐，	지혜와 사려가 남보다 뛰어나도 단지 자신에게 해가 되고
聞見於時未裨一。	견문은 시대에 하나도 보탬이 되지 못하네.
片心皎皎事乖背，	일편단심은 변함없는데 일마다 어긋나고
衆醉冥冥勢陵突。	무리들은 취해서 혼미한데도 세력이 드세네.
出門榛棘不可行，	문을 나서도 가시나무길이라 갈 수 없고
終歲蒿藜尙誰恤？	일년 내내 쑥과 명아주를 먹는데 누가 구제해주리오？

將相公侯雖不爲，	장상 공후가 비록 되려는 것은 아니지만
消長窮通豈須詰？	盛衰와 막히고 顯達함을 어찌 따져야 한단 말인가？
聖賢穰穰力可攀，	성현은 많아도 노력하면 이를 수 있지만
安能俯心爲苟屈？	어찌 아부하며 구차하게 굽신거릴 수 있으리오？

시의 전반부에서는 《詩》·《書》 등 유가 경전을 열심히 학습하였지만,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정치적 상황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시의 중반부에서는 憂國憂民하며 빈궁한 백성들을 구제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데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반면, 오히려 昏庸한 무리들은 권세를 누리고 있는 世態를 비판하고 있다. 그래도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출세를 위해 권세에 아부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성현의 가르침을 꾸준히 연마해 나가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히고 있다. 曾鞏은 이 시를 통하여 청렴결백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등용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民本思想이 제대로 실천화되지 못하는 北宋 당시 官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하겠다.

3. 결론

本稿는 曾鞏의 시인으로서의 위상을 평가하는 선행 단계의 일환으로, 曾鞏의 사회시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曾鞏의 사회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제별로 크게 民生苦에 대한 共感, 爲政者의 無能과 虛禮虛飾 비판, 국방에 대한 失策 비판, 民本思想의 體現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각 주제별로 曾鞏의 사회시 속에 반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曾鞏은 北宋의 모순된 사회현상을 진단하고, 시를 통하여 失政을 비판하고 民生苦에 共感을 表露하였다. 貧窮으로 헐벗은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과 빈둥거리며 녹봉만 축내는 爲政者들을 대비시킴으로써 弊政의 實相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사회의 病理現像을 사실 그대로 생동감 있게 묘사하여 사회시의 핵심적 요소인 事實性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그의 사회시를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둘째, 曾鞏은 北宋 당시 無能하고 虛禮虛飾으로 私利만 추구하면서, 憂國憂民의 본분을 망각한 황제를 비롯한 爲政者들의 잘못된 행태를 시 속에서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가난한 백성들의 疾苦와 爲政者들의 사치스런 생활을 대비함으로써 사회의 병폐를 고발하는 사회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曾鞏은 文臣官僚體制로 인한 武人の 質的 低下와 전쟁경험이 없는 文臣의 參戰, 장수 등용의 문제점 등 국방정책에 대한 失政을 시를 통하여 비판하였다. 무사안일하고 불합리한 국방책으로 異族의 침략을 초래하고, 敗戰함으로써 굴욕적인 화의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恥辱의 현장을 시 속에서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는 대부분 편폭의 긴 古詩가 많은데, 文章家로서의 曾鞏이 '以文爲詩'의 경향을 띤 시를 많이 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넷째, 曾鞏은 儒家思想家로서, 爲政者들은 儒家의 民本思想을 중시하며 民生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爲民政策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시인으로서 그는 이러한 民本思想을 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체현하였던 것이다.

< 參考文獻 >

- 曾鞏 撰, 陳杏珍·晁繼周 點校, 《曾鞏集》, 中華書局, 2004.
倪惠穎, 《論曾鞏前後期詩風演變》, 寧夏大學, 碩士論文, 2004.
李艷敏, 《曾鞏詩歌研究》, 西北師大, 碩士論文, 2005.
李天保, 《曾鞏文學思想研究》, 西北師範大學, 碩士論文, 2005.
江西省文學藝術研究所 編, 《曾鞏研究論文集》, 江西人民出版社, 1986.
祝尙書 譯註, 《曾鞏詩文選譯》, 鳳凰出版社, 2011.
傅樂成 著, 辛勝夏 譯, 《中國通史》, 지영사, 1998.
申採湜, 《宋代官僚制研究》, 三英社, 1981.
涂木水, <曾鞏詩歌內容膚說>, 撫州師專學報, 제4기, 1988.
倪惠穎, <論曾鞏前期詩歌創作>, 《船山學刊》 제63권 제1기, 2007.
李錫炫, <北宋 神宗年間 對西夏 經略과 影響, 認識>, 《역사와 세계》 39집, 2011.
高國藩, <論曾鞏詩及其民本思想>, 《撫州師專學報》 제46기, 1995.
陳斐, <試論曾鞏詩歌的淵源>, 廈門教育學院學報, 제11권 3기, 2009.

< Abstract >

Zeng Gong's Social Poems

Oh, Heon-pil

www.kci.go.kr

Zeng Gong is a characteristic poet in the field of poems of Northern Song

Dynasty. However, since the image was highlighted as one of the TANGSONGBADAJIA, it focused on research on prose, and low praise for poems, and studies of poems were insignificant. However, analysis of his poems suggests that the originality and artistic style of creativity are excellent. Because of this, this thesis made comprehensive and deep study on Zeng Gong's poems, attempts to study particularly about social poems. The result of study, through social poems, he wanted to reflect on empathy for the painful life of the people, criticism of national leaders' empty formalities and vanity, criticism of defence policy failures, and manifestation of the people-based thought.

Key words: Zeng Gong, social poems, theme, criticism of misgovernment, people's plight.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10. 31.	2017. 11. 28.	2017. 12. 08.	2017. 12. 19.	2017. 12. 31.

